

# 체계기능언어학: 대기능과 문장 분석

조진수(전남대학교 국어교육과)

## 주요 내용

본 강연에서는 체계기능언어학의 대기능(metafunction)에 근거하여 한국어 문장을 분석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이러한 분석의 특징과 교육적 의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경험적, 대인적, 텍스트적 대기능에 따라 절을 표상, 교환, 메시지로 규정하는 관점을 검토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어 예문을 분석합니다. 절 분석 후에는 논리적 대기능에 근거하여 한국어의 절복합 과정을 설명하고, 논리적 대기능을 한국어에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검토합니다. 끝으로 발표자의 연구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어 논리적 대기능의 교육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합니다.

## 0. 전제

이 발표에서는 기본적으로 『Halliday's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fourth edition), 2014』(이하 IFG로 표시)에 제시된 이론적 분석 틀을 활용하여 한국어 문장을 분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SFL 이론을 기반으로 한국어를 분석한 다른 연구들도 함께 참조하였으며, 이때 참조한 연구들은 관련 부분에서 소개하였습니다. 주요 개념의 정의에 관해서는 특히 『Key Terms in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Matthiessen et al., 2010)』를 참고하였습니다.

언어학 이론 적용 시 **이론적 모형 수준**과 **지침 수준**을 구분하여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어 문장 분석 시 SFL이라는 언어학 이론의 철학과 모형은 가능한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쟁점적인 세부 지침은 관련 논의를 참고하거나 발표자의 관점에 따라 조정하여 활용하였습니다. 언어학 이론을 특정 언어 분석에 적용할 때, 이론의 기반이나 모형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세부 지침은 관점에 따라 수정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동일하게 SFL을 적용하여 한국어 문장을 분석할 때에도, 연구자에 따라 세부 지침 수준의 차이로 인하여 분석 결과에 미시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 분석 대상의 규정

## ○ 절의 내부 구조 분석

- 경험적 대기능 → 표상으로서의 절
- 대인적 대기능 → 교환으로서의 절
- 텍스트적 대기능 → 메시지로써의 절

(1) 가. 국어교육학회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1)-가

표상으로서의 절: 행위자(Actor)

교환으로서의 절: 주어(Subject)

메시지로써의 절: 테마(Theme)

대기능	절의 성격
경험적 대기능	표상
대인적 대기능	교환
텍스트적 대기능	메시지

국어교육학회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행위자		
주어		
테마		

(1) 나. 세미나는 국어교육학회에 의해 개최되었다.

(1)-나

대기능	절의 성격
경험적 대기능	표상
대인적 대기능	교환
텍스트적 대기능	메시지

세미나는	국어교육학회	에 의해	개최되었다.
	행위자		
주어			
테마			

## ○ 절 복합 과정 분석

논리적 대기능 → 배열(종속, 병렬)과 논리-의미 유형

### [이론적 쟁점 탐구]

- ▣ 세부 내용에 차이는 있으나, 일반언어학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행위자', '주어', '테마'는 각각 논항구조(또는 의미역 구조), 통사구조, 정보구조 층위와 관련됨. 그러나 이론화 방식, 개념화 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특정 이론에 기반하여 개념을 다룰 때에는 그 이론의 규정 방식을 따르는 것이 필요. → 이 문제는 교육에서 이론의 활용 방식에 관한 고민으로 이어짐.

## 2. 한국어의 절 내부 구조 분석

### (1) 텍스트적 대기능에 근거한 한국어의 절 내부 분석

#### ○ 테마(Theme): 메시지의 출발점

(the element that serves as the point of departure of the message, IFG, 2014:135)

(2) 가. 국어교육학회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나. 이 세미나에서 우리는 체계기능언어학을 공부하고 있다.

대기능	절의 성격
텍스트적 대기능	메시지

국어교육학회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테마	레마

대기능	절의 성격
텍스트적 대기능	메시지

이 세미나에서	우리는 체계기능언어학을 공부하고 있다.
테마	레마

(3) 가. Where did you get that from? (IFG, 2014:153)

나. 어디서 그 자료집 받았어?

다. 너 그 자료집 어디서 받았어?

대기능	절의 성격	Where	did you ger that from?
텍스트적 대기능	메시지	Theme	Rheme
(IFG, 2014:153)			

대기능	절의 성격	어디서	그 자료집 받았어?
텍스트적 대기능	메시지	테마	레마

대기능	절의 성격	너	그 자료집 어디서 받았어?
텍스트적 대기능	메시지	테마	레마

## ○ '출발점'이라는 개념의 모호함

- 지침 수준에서 나타나는 다양성 / 이론의 기초 개념 유지하기
- 화제적 테마(또는 경험적 테마), 대인적 테마, 텍스트적 테마
- 영어에서 화제적 테마는 언제나 테마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함(Matthiessen et al., 2010:230)
- 경험적 대기능의 요소는 참여자, 과정, 환경인데, 화제적 테마는 참여자, 과정 없이 환경만으로 구성될 수도 있는가?(한정한, 2021:114 각주 26의 논의 참조)

### [이론적 쟁점 탐구]

#### ■ 테마의 범위

- 연구자에 따라 (2나)에서 '이 세미나에서'가 아니라 '이 세미나에서 우리는'까지를 테마로 처리할 수도 있다. 경험적 대기능의 요소 중 환경만으로는 화제적 테마의 끝 부분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도 있기 때문이다. 어디까지를 테마로 처리할지는 이론적 모형이 아니라 적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지침 차원의 문제로 다양한 의견이 공존한다.
- 이러한 문제는 '출발점'이라는 개념의 모호함에서 발생한다. 어디까지가 메시지의 출발점이며, 그러한 판단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이 물음은 여전히 논쟁적이다. 이 발표에서 맥락에 따라 '이 세미나에서'가 출발점이 될 수도 있고 '이 세미나에서 우리는'이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맥락에 따라 구정보가 다르게 설정될 수 있기 때문에 맥락 정보 없이 출발점을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단, 체계기능언어학에서는 테마/레마 분절과 정보구조 분절을 관련되지만 구분되는 층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 수밖에 없다. 교육 이론으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적용상 지침 수준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명확성이 요구되므로 앞으로 계속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 메시지의 출발점을 어디까지로 잡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가?

## ○ 정보구조와의 관계

- 정보구조상 정보 단위: 구정보와 신정보
- 메시지로서의 절 분석 단위: 테마+레마

(4) 가. A: 어제 뭐 했어?

B: 난 체계기능언어학 관련 책을 다시 읽어봤어.

나. A: 누가 이 책을 준 거야?

B: 우리 형이 준 거야.

(4가-B) 무표적

구분	난	체계기능언어학 관련 책을 다시 읽어봤어.
텍스트적 대기능	테마	레마
정보구조	구정보	신정보

(4나-B) 유표적

구분	우리 형이	준 거야.
텍스트적 대기능	테마	레마
정보구조	신정보	구정보

## [이론적 쟁점 탐구]

### ▣ SFL의 테마-레마 구조와 정보구조 이론의 화제-평언 구조 간의 관계

- 테마와 토픽은 같은 것인가? 테마라는 용어는 학파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출처: IFG, 2014:136)

<sup>1</sup> Some grammarians have used the terms Topic and Comment instead of Theme and Rheme (e.g. Hockett, 1958: 201–203; cf. also Li & Thompson, 1976). But the Topic-Comment terminology carries rather different connotations. The label ‘Topic’ usually refers to only one particular kind of Theme, the ‘topical Theme’ (see Section 3.4); and it tends to be used as a cover term for two concepts that are functionally distinct, one being that of Theme and the other being that of Given (see Sections 3.5 and 3.6; and cf. Fries, 1981). It seems preferable to retain the earlier terminology of Theme-Rheme. In the generative linguistic literature, Gruber (1976: 38) introduced the term ‘theme’ in an experiential (rather than textual) sense for a kind of participant role, a ‘theta role’ in generative terms. In work drawing on Fillmore’s (1968) ‘case grammar’, the term ‘theme’ has also been used as a label for deep case, or semantic case. In a different context, ‘theme’ is also used as the name of a stratum in verbal art: see Hasan (1985b: 96).

- 최근 정보구조 이론에서 논의되는 화제-평언의 개념, 구정보/신정보의 개념은 SFL의 관련 개념과 차이를 보인다. 이론 연구자의 관점에서, 특히 문법교육 이론 연구자의 관점에서 이러한 이론상의 차이는 매우 고민스러운 문제이다.

[더 읽어 보기] 텍스트적 대기능의 문법교육적 적용에 대한 논의는 주세형(2005, 2007) 참조

## 2) 대인적 대기능에 근거한 한국어의 절 내부 분석

### ○ '교환', '대인적'

#### - 교환

: 상호작용 과정에서의 '교환'이라는 관점에서 절을 바라봄.

: 무엇이 교환되는가? 정보 또는 재화&서비스

: 상호작용 과정에서 무엇을 하는가? 제공하기와 요구하기

→ SFL에서는 위의 두 질문에서 얻은 답을 조합하여 교환의 유형을 설정함.

: 진술[정보 제공], 질문[정보 요구], 제공(offer)[재화&서비스 제공], 명령[재화&서비스 요구]

#### - 교환으로서의 절이 취하는 형식, 기능

: 교환 대상이 정보인 경우 - 명제(proposition)

: 교환 대상이 재화&서비스인 경우 - 제안(proposal)

○ '서법부(Mood)', '주어 ^ 정형소(Subject ^ Finite)'의 관계

- 교환의 관점에서 절은 '서법부(Mood)+잔여부(Residue)'로 분석됨.

(1) 가. 국어교육학회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대기능	절의 성격	국어교육학회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텍스트적 대기능	메시지	테마	레마		
대인적 대기능	교환	국어교육학회는	세미나를 개최하	였	다.
		서법부	잔여부	서법부	

- 서법부: 주어(Subject), 정형소(Finite)

- 정형소는 왜 교환에서 중요한 요소인가?

: SFL에서 본 정형소의 기능 - "명제를 발화 사건의 맥락과 관련짓기, 명제를 이 세상으로 가져오기(it brings the proposition down to earth), 명제에 참조점을 부여하여 논의 가능한 것으로 만들기(IFG, 2014:204)"

: 정형소 - 시제(tense), 양태(modality), 극성(polarity) (Matthiessen et al., 2010:98)

- '종결 어미'

(교착적 요소로 서법 실현하는 한국어의 유형론적 특성 고려, 이관규 외, 2021:106)

(5) 그 세미나는 아마도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

대기능	절의 성격	그 세미나는	아마도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					
텍스트적 대기능	메시지	테마	레마					
대인적 대기능	교환	그 세미나는	아마도	어렵-	-지 않-	-았-	-을 것 같	-아.
		주어	양태적 부가어	잔여부	극성 (부정)	시제 (과거)	양태	평서형 종결
		서법부			정형소 서법부			

**[이론적 쟁점 탐구]**

■ '교환'과 '주어(Subject)'의 관계?

- SFL에서는 '교환'은 '대인적 기능'과 관련된다고 보고, 대인적 기능은 문장에서 '서법부(Mood)'에 의해 실현된다고 봄. 그런데 SFL의 'Mood'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임. SFL의 'Mood'는 대인적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통 'Subject^finite(주어^정형소\*)'로 실현됨. 교환으로서의 절에서 주어에 주목하는 것은 Subject가 서법부의 한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음.
- SFL의 설명에 따르면 교환으로서의 절은 상호작용적 사건이고, 이때 '주어'는 그러한 절의 기능에 대해 책임을 지는 요소[being held responsible for the functioning of the clause as an interactive event(IFG, 2014:206)]이다.

\* 'finite'은 언어에 따라 단어가 아닌 요소로 실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발표에서는 '정형어'나 '한정어'가 아니라 '정형소'로 번역하였음.

### 3) 경험적 대기능에 근거한 한국어의 절 내부 분석

#### ○ 경험적 대기능에 관한 최근 국내 연구

: 최근 국내 연구에서 한국어의 과정 유형 분류 논의 이루어짐(이관규, 신희성, 2020)

: 국내에서 대규모 학습자 자료를 대상으로 한 경험적 대기능 연구 이루어짐

(e.g. 주세형 외, 2020 ; 이관규 외, 2021 ; 정지현 외, 2022)

Halliday & Matthiessen(2014)		이관규·신희성(2020)		
물질적 과정	물질적 과정	물질적 과정	작용적 과정	유·무정 명사의 작용
	행위적 과정		행동적 과정	유정 명사의 행동
정신적 과정	정신적 과정	정신적 과정	발화적 과정	인간의 발화
			인지적 과정	인간의 인지
	지각적 과정		유정 명사의 감각적 지각	
	발화적 과정		감정적 과정	인간의 감정
관계적 과정	관계적 과정	관계적 과정	속성적 과정	개체의 속성
	존재적 과정		식별적 과정	개체의 정체성
물질적 과정	존재적 과정	물질적 과정	존재적 과정	개체의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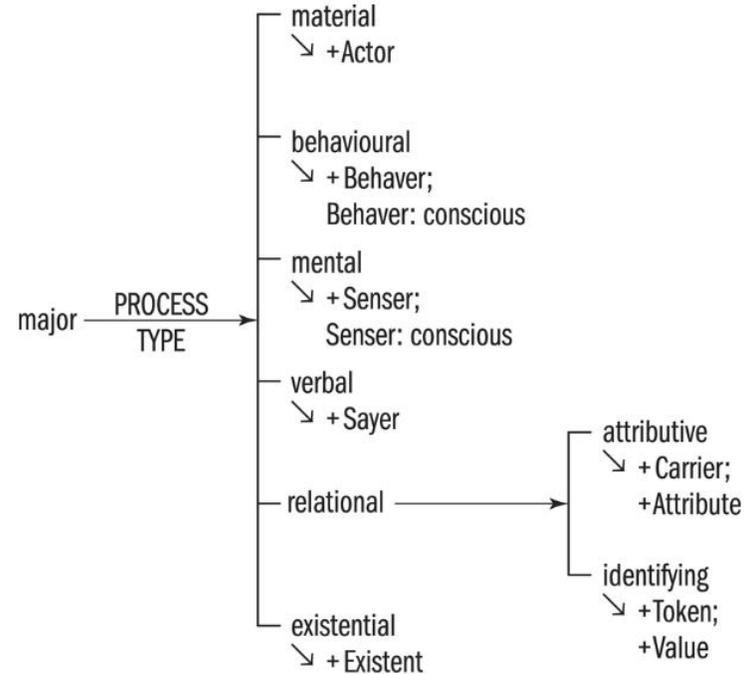


Fig. 5-4 TRANSITIVITY: process type represented as system network

\*표 출처: 이관규 외(2021:199)에서 재인용

\*그림 출처: IFG(2014:301)

### 3) 경험적 대기능에 근거한 한국어의 절 내부 분석

(1) 가. 국어교육학회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대기능	절의 성격
텍스트적 대기능	메시지
대인적 대기능	교환
경험적 대기능	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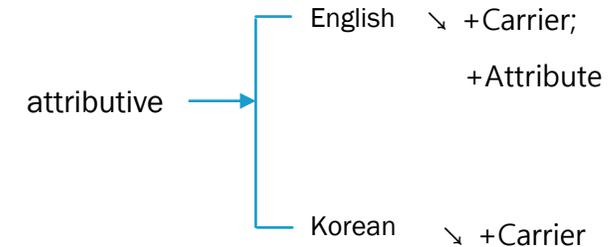
국어교육학회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테마	레마		
국어교육학회는	세미나를 개최하	였	다.
서법부	잔여부	서법부	
국어교육학회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참여자	참여자	과정	
행위자	목표 대상	물질적 과정	

속성적 과정은 언어유형론적 특성 반영하여 선택항 재구성 필요  
(속성적 과정에서 한국어의 유형론적 특성은 이관규 외(2021:77-78)에서도 논의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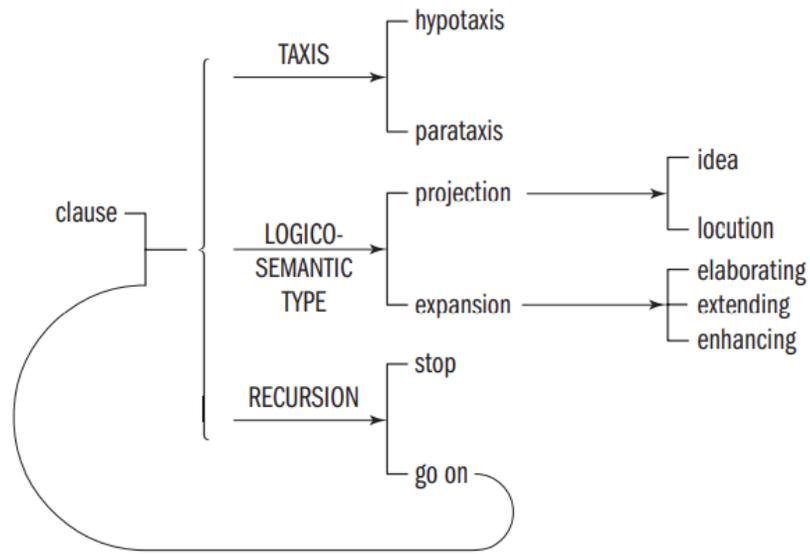
(6) 이 세미나는 유용했다.

대기능	절의 성격
텍스트적 대기능	메시지
대인적 대기능	교환
경험적 대기능	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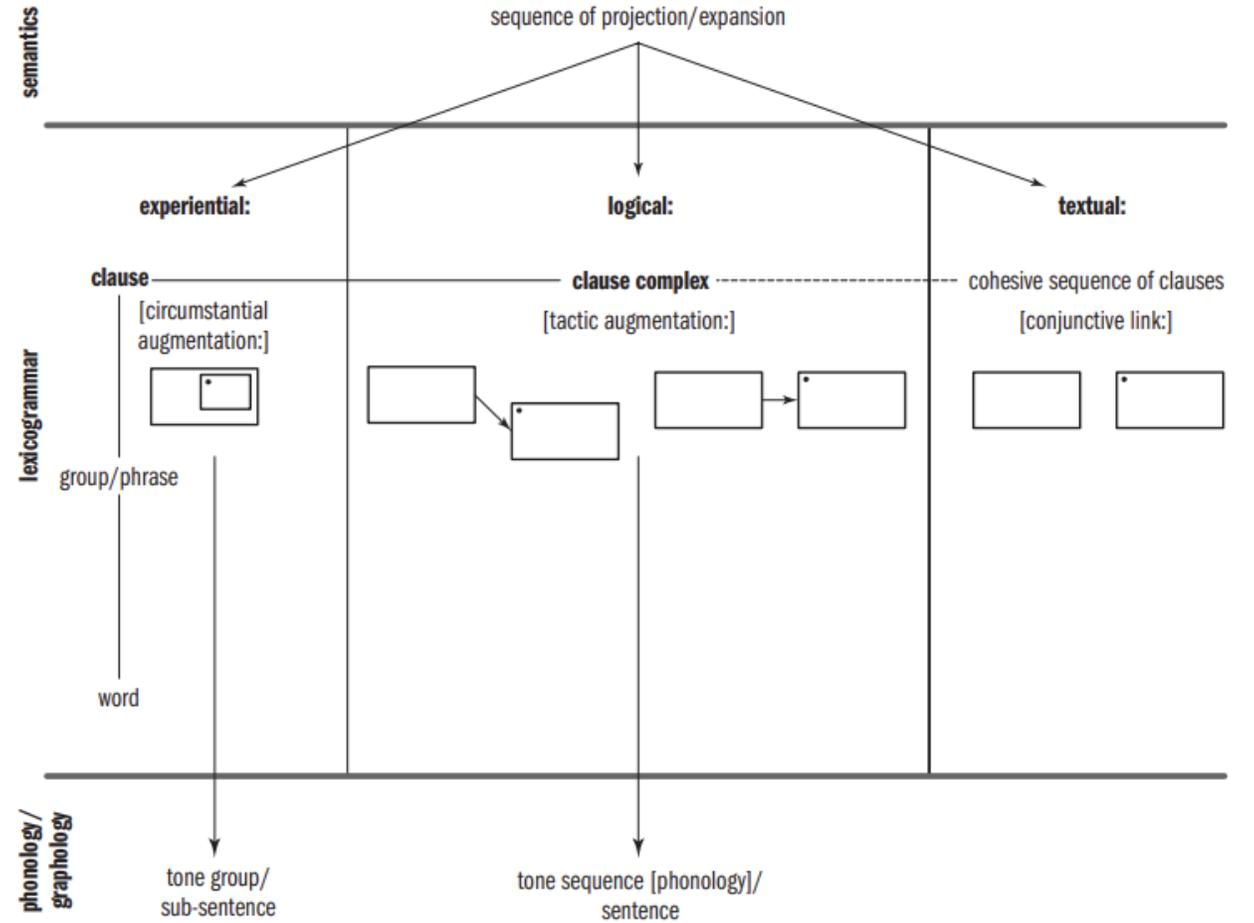
이 세미나는	유용했다.		
테마	레마		
이 세미나는	유용하	였	다.
서법부	잔여부	서법부	
이 세미나는	유용했다.		
참여자	과정		
담지자 (Carrier)	관계적 과정 중 속성적 과정		



### 3. 한국어의 절 복합 과정 분석



[그림] SFL의 논리적 대기능 선택항  
\*그림 출처: IFG(2004, 373)



[그림] SFL에서 논리적 대기능이 다른 대기능들과 맺는 관계, 논리적 대기능의 위상  
\*그림 출처: IFG(2004, 370)

## <발표자의 연구 사례 검토>

### [대기능 간 관계의 또 다른 국면]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인 “[9국04-06] 문장의 짜임과 양상을 탐구하고 활용한다.(교육부, 2015:50)”의 해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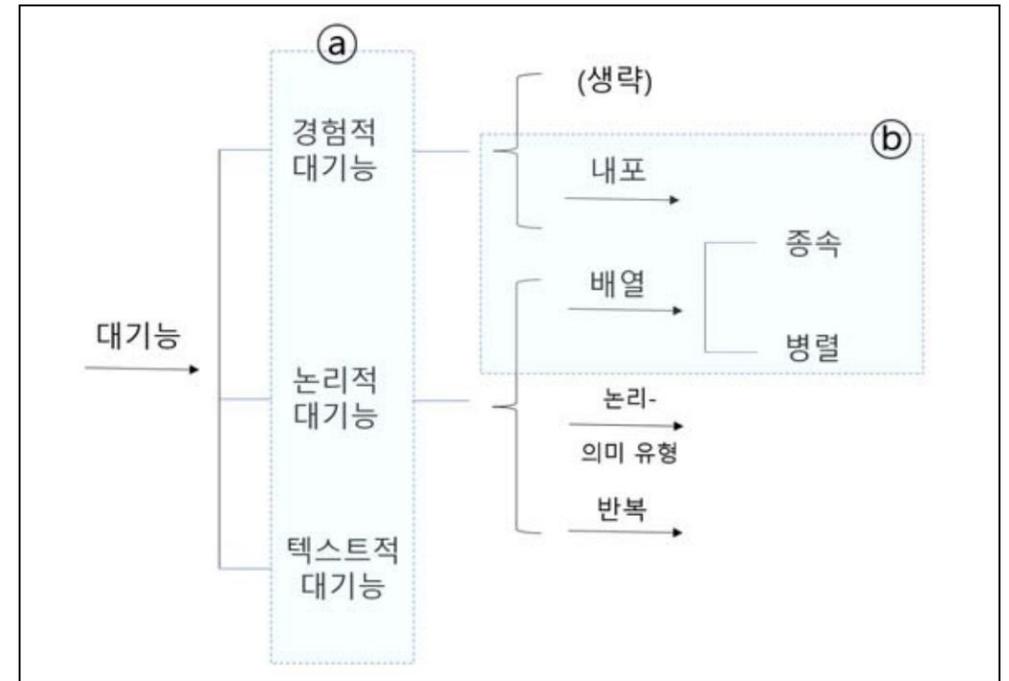
“[9국04-06] 이 성취기준은 문장의 다양한 짜임을 익히고 의도에 맞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문장은 크게 홀문장과 겹문장으로, 겹문장은 이어진문장과 안은문장으로 나뉜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이라도 홀문장으로 쓰느냐 겹문장으로 쓰느냐, 이어진 문장으로 쓰느냐 안은문장으로 쓰느냐에 따라 표현 효과가 달라지는데, 이러한 표현 효과를 탐구하고 표현 의도에 따라 다양한 짜임의 문장을 국어생활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교육부, 2015:51) (밑줄은 인용자)”

위 내용에서 “홀문장으로 쓰느냐 겹문장으로 쓰느냐”는 텍스트적 대기능과 논리적 대기능이 선택항을 이루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어진 문장으로 쓰느냐 안은문장으로 쓰느냐”는 논리적 대기능과 경험적 대기능에 해당한다.

\*출처: 조진수(2022: 112)

[오해해서는 안 되는 대기능 간 관계들]

- 아래는 논리적 대기능의 위상 설명을 위한 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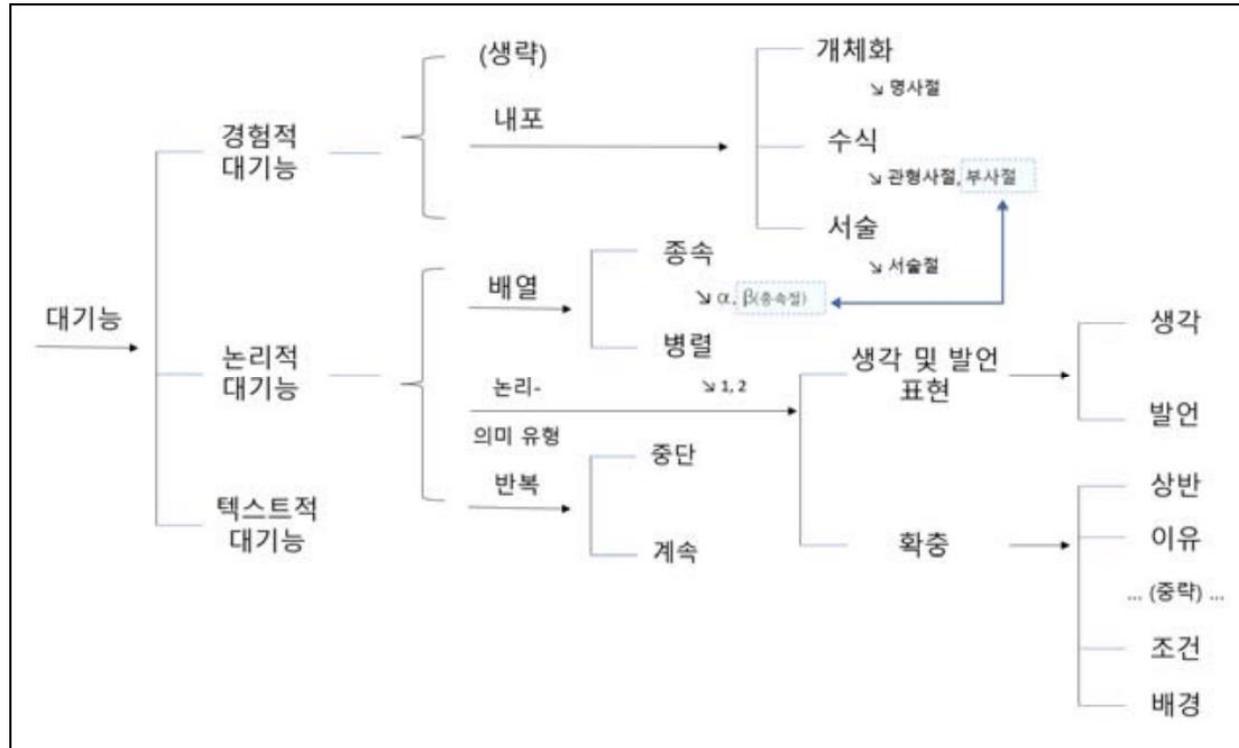


<그림 3> 논리적 대기능의 제시 맥락

\*출처: 조진수(2022: 113)

# 논리적 대기능의 국어 문법 교육적 재구성 방향

- 진행 중인 논의로 지속적인 논쟁, 개선, 대안 제시 필요



## ○ 국어 문법교육적 재구성의 쟁점들

- 일반언어학 이론으로서의 SFL의 이론적 모형을 유지하면서 한국어의 유형론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중속절과 부사절의 관계)
- SFL에서 서로 다른 대기능에 속한 내포와 배열을 문법교육의 국면에서 함께 다룰 수 있는 방안(혹은 함께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논쟁도 가능)
- 논리-의미 유형에서 확충의 하위 유형 설정 수준(중등 교육 국면에서 수용 가능한 교육 내용의 복잡성 정도 논의 필요)

<그림 8> 논리적 대기능 선택항 체계의 교육적 재구성 결과 및 제시 맥락

\*출처: 조진수(2022: 122)

## 참고 문헌

교육부(2015), 「국어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이관규·신희성(2020), 「체계기능 언어학적 텍스트 분석을 위한 동성 체계 기초 연구: 과정 유형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87, 91-130.

이관규·김서경·노하늘·성수진·신희성·유상미·이현주·정려란·정지현·정혜현(2021), 『체계기능언어학 개관』,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이관규·정혜현·노하늘·신희성(2021), 「경험적 대기능의 장르별 실현 양상 비교 연구 — 초등학교 5학년 학습자 텍스트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56(1), 185-229.

신희성(2019), 「텍스트의 대인적 기능에 대한 문법교육적 연구: 언어하기 관점을 바탕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지현, 정혜현, 노하늘(2022),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텍스트에 나타난 경험적 대기능 발달 연구 - 장르에 따른 과정 유형의 실현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어문교육』 38, 181-220.

조진수(2022), 「한국어 논리적 대기능의 문법교육적 정립」, 『문법교육』 46, 101-128.

주세형(2005), 「쓰기 교육을 위한 대안적 문장 개념」, 『어문연구』 33(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475-501.

주세형(2007), 「텍스트 속 문장 쓰기와 문법」, 『한국초등국어교육』 34,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409-442.

주세형·정혜현·노하늘(2020), 「초등학교 4, 5 학습자의 경험적 대기능 발달 연구: 과정 유형 및 참여자 구성 패턴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어문교육』 32, 105-142.

한정한(2021), 「체계기능언어학 기반 국어 소형절의 유형과 특징」,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53, 95-128.

Halliday, M. A. K., & Matthiessen, C. M.(2004),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3rd Edition), Hodder Education.

Halliday, M. A. K. & Matthiessen, C. M.(2014), *Halliday's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4<sup>th</sup> Edition), Routledge.

Halliday, M. A. K., & Matthiessen, C. M.(2014), *Halliday's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4<sup>th</sup> Edition.), Routledge, 한정한·차명희·윤혜경·심은정·고유리·도혜민 역(2022), 「Halliday의 기능 문법 입문 체계기능언어학(제4판)」, 박이정.

Matthiessen, C. M., Teruya, K., & Lam, M.(2010), *Key Terms in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Continuum.